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실천방향 제언

김한옥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I. 서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 온 이래 놀라울 정도의 양적 팽창과 활동을 하였다. 인구의 약 25%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생활 개선을 주도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새로운 교육, 서구식 병원, 절제운동, 여성해방운동, 사회사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다(전광현, 2007).

기독교사회복지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접목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대 통합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나 접근방법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기독교와 사회복지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이질적인 양 영역간의 화해로, 화합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와 사회복지란 역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상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역에서 동질의 것을 추구하며 발전되어 온 것이다(오은석, 2003).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과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은 신앙 전도와 교육면(모이는 교회)에서는 잘 인식하면서도 사랑 실천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흠어지는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복지예산의 취약이나, 사회복지 전문인의 부족, 사회복지시설 공간의 부족 또는 미활용 등으로 참여가 부진, 담보 상태로 보인다. 생명-복음-사랑-섬김(봉사)과 같은 기독교 사상이 실제로 이웃사랑, 사회정의 실현, 나눔과 원조로 잘 연결되어 원활히 작용할 때 더욱 인간 본래의 인성회복, 신의 찬양,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낙원회복의 목적을 잘 실현할 것이다. 신앙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합일하는 사랑실현을 위해 교회가 가능한 한 모든 복지 요소들을 잘 구성해서 좋은 사회 만들기, 사회문제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는 사명 역할을 잘 담당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나상운, 2003).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회복지계 내에서 상당부문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선후기에 시작된 기독교 선교는 구제와 사회봉사에서 비롯되었다. 구한말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독교 외원단체들이 들어와서 고아원, 병원, 학교를 세우고 자선사업과 구빈활동 중심의 사회봉사를 주도했다. 사회사업이라는 전문직이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도 1947년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이화여자 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강춘근, 2004). 이후 예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은 지속되었으며, 한국의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정비됨에 따라 기독교의 참여도 활발해졌다(양혜원·김희수, 2011).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최근 기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가 다소 약화된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의 25%가 기독교계이며, 사회복지사들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강춘근, 2005).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한국의 종교현황'에서는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 주요 법인 372 개 중 기독교 관련 법인이 194개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이렇듯

기독교가 주체가 된 사회복지활동이 양적으로는 타종교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외형적 성장과 재정적 여력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양혜원·김희수,2011; 이성곤, 201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 기독교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활동 즉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점검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기독교의 올바른 방향과 아울러 민간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본래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본 론

1.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을 밝히려면 먼저 일반 사회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기독교와 어떠한 맥락에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의 근본성격은 기독교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인해 그 점이 강화되고 행동화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봉사에 대해 기독교의 맥락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임을 발견하게 된다. 성서적 신앙의 내용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 및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활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현실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로마서 8장 35절). 생활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과 이를 저해하는 것과의 다툼이 있게 하며, 기독교 진수를 구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적인 삶의 자세가 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며, 현재 보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요한 일서 4장 20절)는 것을 말한다(전광현, 2007).

신앙의 본질이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그리고 일반 사회봉사의 성격을 넘는 특성의 본질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천에 있어서의 사회봉사활동은 사용되는 자로서의 위치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제물로 인정된다는 점일 것이다.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너를 위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된다” 라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회봉사활동이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그(기독교사회복지) 개념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사회복지학자들은 거시적이고 이념적 차원의 '기독교 사회복지'와 미시적이고 실천적인 '교회사회사업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호한 개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기독교사회복지 내지 교회사회사업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회사업)교육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데서 오는 혼돈현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박종삼, 2003, 이성곤, 2013).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과 그 실천행위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도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인간 삶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다. 단 기독교 사회복지가 그 사상적 근거를 종교적인 원인에서 찾는다면 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인간 자유와 평등 등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인간관에 그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운영자들의 종교적 분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시 구제,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사회복지 라는 말의 근대적 개념인 자선, 박애, 구빈 등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행위가 주로 서구 기독교에 의해 실행되어 왔다. 이렇듯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관심과 개념을 가지고 왔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독교 사회복지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회복지가 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단체, 더 나아가 사회기관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도 일차적 구제와 봉사를 넘어서 지역사회 복지와 국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손주완, 2002).

2. 기독교 사회복지의 특성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사업의 실천 주체가 기독교, 신자, 교단 등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에 의하여 실천된다는 점에 일반 사회봉사와는 다르다. 즉 일반 사회봉사는 종교 교리와는 다르게 인본주의적 가치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근본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일반 사회봉사의 목표를 넘어서 궁극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회봉사가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 사회복지활동은 영적인 구원과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회봉사의 관심은 제공되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에 있다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중요한 관심의 하나는 사회봉사를 실행하는 교인이나 기독교, 교단 등의 사명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전도와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일을 행한 자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얻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위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실시되는 것이다(전광현, 2007).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의 그 주체가 아무리 인간에 의해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영적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며 인간의 육적, 영적 타락이 인간의 비참함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복지의 길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우리에게 기독교론과 인간론의 물음과 더불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다(유 현, 2004).

기독교 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출발점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의 출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의 기본원리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그 기본 원리를 궁극적 실재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개념은 인간고(人間苦)의 해소,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인간의 평등 및 기회 균등의 실현,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그 기본 원리로 하여 인간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그 기본 원리는 정의의 실현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기독교에서는 인간존재의 좀 더 궁극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예수의 인간이해 즉 인간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적 사상에 입각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사랑 과 이웃 사랑 정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신체적,정신적 문제해결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평등을 실천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행위를 의미한다(손주완, 2002).

3. 기독교 사회복지의 의의

기독교적이라는 맥락은 기독교입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의의와 사회적으로 주는 의의로 말할 수 있다(전광현, 2007). 가교적인 역할로서 관리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되어 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체성을 찾아주며, 또 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 중간적 입장에서 교류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발달적 과제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서 친구와 같은 분위기에서 대화, 놀이, 캠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다. 그런데 이는 전문직과는 다르게 아마추어로서의 입장에서 치료적, 발달적 과제에 따라 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다. 복지 교육적, 사회 교육적인 역할이다. 복지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삶의 표현양식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로 봉사제공자(service-provider)의 역할이다. 교회는 빈민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적·물적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강준렬, 2003: 54). 둘째는 가치판단자(value-judge)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성경에 기초해 가난한 자에 대해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 반면(잠 14:21),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는 것이요”(눅 18:22), 그 구제로 인해 “구제를 행한 자는 더욱 풍족해질 것”이다(잠언 11:24). 셋째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역할이다. 사례관리자는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어, 서비스 내용계획을 세우고, 수혜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켜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서비스 전달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교회의 역할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김광열, 2006). 넷째,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이다.교회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들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민이 곧 교인이므로 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를 기반으로 교회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교회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교회는 교회 예산 중 일부,정부보조금,후원금,사업이익금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문제의 해결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교회가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길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복지사역을 같이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이미 얻은 행복을 나누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일이다.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이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강희동, 2011).

4. 기독교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책임과 역할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갖는 연대 의식과 책임 의식의 표현이다. 여기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변화에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관심사 중 일부분은 그 교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생활 안에서 복음을 증거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그룹들과 기관들을 충분히 알도록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지식은 교회로 하여금 그 지역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고, 그 지역 사회의 가장 절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는 각계각층마다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곤욕을 풀어주며, 고독하고 불행하며 불안에 싸여있는 지역주민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

주요 역할로서 첫째, 가치 제공자의 역할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퇴폐문제,전통상실 문제 등은 바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는 사회규범을 사회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아노미적 상황아래의 청소년들은 감성적 판단이나 순간적 쾌락에 의존해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무규범의 혼란스런 상황을 교회가 성경적 정의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올바른 가치와 규범을 제시해 줌으로써 가치혼란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잘못된 기존의 관행들을 교정시킬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역할이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절대빈곤 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 산업화로 인해농어촌의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떠나 버렸기 때문에 농어촌은 노령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때 교회는 빈민,노인,장애인 그 밖에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구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직접 실현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특히 복지다원주의 하에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크게 기여하도록 주변환경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다.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사례관리자는 수혜 대상자를 확인

하고,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서비스 사용 계획을 세우고, 수혜 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 달되도록 서비스 전달과정을 감독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정부나 사회복지 기관들과는 달리 지역 사회 주민이 곧 교인이므로 주민들의 문제와 욕구에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실현 가능한지 등에 관해서 지역사회의 교회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순봉, 2008).

5.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활동내용

기독교사회복지의 기독교적 역할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의 형태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사회복지적 사회봉사활동은 행정이나 전문종사자, 당사자활동 과 연계, 협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 상호부조

상호부조는 동료인간들을 파괴하거나 노예화하는 것을 보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였다. 타인의 고통을 동시에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신앙 공동체의식이 존재할 때 생긴다.

2) 자선사업

종교적 동기의 자선사업(charity work)은 병자, 노약자, 빈민, 고아 등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다. 종교적, 감정적 동기에서 생활이 곤궁한 자를 원조해 주는 구제활동이다. 자선사업은 자기 자신의 무절제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행실이란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자선사업을 하는 삶을 살도록 강권한다. 사회사업은 개인적인 자선사업, 특히 교회에 관련된 구제사업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교인들의 우정 어린 방문, 음식 바구니의 전달, 빈민 구제 기금, 집사 구제 기금과 농촌 봉사는 사회사업에 앞선 교회봉사활동의 일례(一例)였다.

3) 박애사업

박애사업(philanthropy work)은 도덕적 동기에서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인간애의 구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종적 편견이나 국가적 이기심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해동포주의다. 인도주의적 박애사업은 근대 자본주의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와 빈자간의 계급 대립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적개심을 무마시키고자 부자는 도덕적 양심에서 시혜적 보호활동을 행하게 된다. 박애주의자는 자기

의 경제적 . 사회적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도덕적이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4) 자원봉사

자원봉사(volunteer services)는 자신해서 어떤 일에 무료봉사로 참여하는 거룩한 직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사회를 꿈꾸며 살아간다. 이상사회를 위하여 자기가 무엇인가 기여하며 산다는 의식이 있을 때 보람되고 자존심 있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상사회의 욕구와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사적, 자발적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자는 무임으로 봉사하나 그에게 무언가 정신적인 보상을 받는다.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첫째, 남을 돕기 원하는 이타심(altruism), 둘째, 경험 . 관심 . 지식 . 직업과 같은 개인적 이득을 찾으려는 자기이익(self-interest), 셋째,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기 바라는 사회성(sociability)으로 그 동기를 구분한다. 사회가 고도로 세분화되고 사회문제 역시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개인적인 요청에 따른 비체계적인 봉사활동에서 사회적 요청에 따른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원봉사 참여활동이 사회복지사업의 기틀이 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란 교회, 그리고 교회들의 연합체와 그 산하 기관들이 실천하는 사회복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복지활동이란 교회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적,민간적인 모든 노력에 동참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여기서 기독교와 교회의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종교적 신념체계라면 교회는 종교적 조직체계를 말한다(Moberg,1984).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이고 교회사회복지는 교회라는 민간기관 조직체계가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이다(Garland1992; 유장춘 2000).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님들께서는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의 한국 기독교의 사회봉사를 주도적으로 리드하여야 할, 아니면 한국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시되고 강조되며, 아울러 기대하고 있는 정황에서 아직도 목회자들의 의식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재정으로써 자발적인 모금에 의한 재정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방안으로 공동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발성, 복지성, 계속성, 무급성의 정신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은 질병자에게 사망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의료사업,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자녀들이 공동으로 발전하게 하는 보육사업과 교육사업, 공동으로 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장의 알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공생공존 할 수 있는 사회형성 등을 사회복지사업활동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이다(강준렬, 2003).

교회의 봉사활동과 일반 사회사업은 인간의 물리적 욕구에서부터, 나아가 사회적.정신적 욕구에 반응하며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체로 기독교 신앙과 사회사업의 지식, 가치 및 기술은 무리 없이 통합될 수 있다. 교회의 자원과 헌신적 자세, 그리고 사회사업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양과 질에 있어서 풍부한 사회봉사를 실현할 수 있다. 교회 자체 또는 교회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사업의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목회자이든 일반신도이든 인생

에 대한 신앙적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문적 사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 문제는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회봉사는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 개입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있다. 교회 사회복지사업은 구제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 서비스, 즉 교육, 상담, 위기개입,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도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조직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나아가 개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계몽 활동도 할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문명을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전달하는 가치관과 전통적인 지역사회와의 가치관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지속하여 왔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교회의 봉사, 자선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소개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저변의 소외된 자들에게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초기 한국교회는 교회 확장운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동반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개화기에 있어서 기독교를 통한 사회활동을 보면 신교육사업과 의료사업, 청소년 운동, 문화활동, 여성해방운동, 생활개선, 건강, 위생에 대한 계몽 등의 사업을 주로 행하였다(나상운, 2003).

교회가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돌봄에 있어서 봉사의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즉 어떠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인데, 여기에서 복음서 전반에 나타난 예수의 복지사상은 철저한 겸손과 섬김의 봉사였다. 겸손에 기초한 사회관계의 요청이 예수의 복지사회를 향한 요청이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동기는 어떤 성격의 것들이며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기 보다는 교회자체의 성장에 열정을 쏟아 넣었기에 상대적으로 교회의 사회복지의 실천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문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통적인 종교의 자선행위, 자기중심적 신앙의 생활적 표현, 교회의 부수적인 봉사활동 등의 생각의 틀이 인간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한 섬김의 정신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며 교인들로 하여금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교인들의 동기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프로그램을 파악한 다음의 과제는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구체적이며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 교회의 양적 성장에 따른 기대 중의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념체계의 중심이 사랑이라면 그사랑이 가장 구체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봉사로 할 수 있는데 사회일반의 관심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 사회봉사에 노력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집약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진정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대해 교회는 무엇인가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일회성 사업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선호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교회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예측하는 가운데 사업의 규모와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남희수, 2005).

6.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활동 실태와 과제

교회의 합당한 사회복지계획은 당회에서 하지만 실제의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반드시 담임목사가 복지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사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인들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 자격을 취득한 고급 인력들이 있으면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교회의 자원에 알맞은 구체적인 계획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운영도 전문가에게 맡기며 교회는 필요한 자원과 봉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교회가 미시적인 안목과 함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어린이 집이나 방과후 수업은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자 되어야 성취할 수 있는 사역이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작을 할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미래의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 된다. 지금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가 15-6년이 지나면 교회의 청년으로 재생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사역을 해야 한다. 복지(福祉)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안녕상태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적인 복지 사역도 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도록 해야한다. 사람들의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나누도록 할 때에 행복은 만들어진다(강희도, 2011).

기독교사회복지는 봉사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으로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이 기독교의 신앙적 동기와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독특한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봉사일때에야 기독교적인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새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실험되는 공동체는 모든 장벽과 소외와 고립이 극복된, 그래서 ‘우리’와 ‘그들’로 구분되지 않고,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열되지않는, 그리고 모두가 가족이요, 동료요, 친구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운동이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최고의 봉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공동체화되게 한다(나상운, 2003).

교회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지만 이 자원들은 성도들의 신앙적, 의식적, 일치 아래 동원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우 정교한 일치의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 또는 몇몇 주도자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봉사적 영성을 갖추는 과정과 봉사적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민주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회의 자원을 기독교사회복지운동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적자원동원을 위해서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은행, 자원봉사 캠프, 사회분야별 기독교 전문인과 준전문인의 동원 등의 활동을

실천할 수 있고, 둘째로, 시설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교회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건립, 그리고 활용 가능한 지역시설의 임대 또는 차용 등의 방법이 있다. 셋째로 재정자원을 동원하는 일에는 먼저 교회의 총예산에서 봉사비 항목의 비율을 상향시켜야 하고, 사회봉사를 위한 녹색봉투 비치, 자선기금 공연, 긴급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절기헌금의 사회복지적 활용, 봉사주간시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넷째로, 물질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나바다 장터를 개설하고 의복, 식품, 의료품, 가구류, 교육자료, 생활용품 등을 교인들로부터 수집하는 사업 등이 있다(나상운, 2003).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로 첫째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바른 의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교회가 기도하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소망의 토대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방향성을 바로 설정하는 일이다. 지역복지 사업은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에 대하여 우월의식이나 시혜적인 태도를 가져서도 안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의 복지관련 기관, 동사무소, 교회, 지역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자원을 나누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차적인 복지 대상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조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교회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먼저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이형진, 2008).

2012년 사랑의교회는 사랑의복지재단을 통해 12일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1320 가구와 장애인 시설 26곳에 쌀 30t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회는 이번 후원행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20가구에는 매달 쌀 10kg을 1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보호자가 없으면 앉거나 돌아누울 수 없는 외상장애 12가구에는 소화흡수가 빠른 대체식품 1년치를, 70가구에는 전동침대 무상 대여를 지원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이웃사랑선교부(교도소, 입양, 독거노인, 긴급구호, 무료급식, 한부모가정 지원)와 장애인선교부(장애인 시설방문사역), 호스피스·전인치유(사별관리, 호스피스) 부서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있다. 교회는 97년 사랑의복지관을 개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담, 후원, 가족교육, 직업교육 등을 해왔다. 사랑의교회는 1996년 사랑의복지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복지욕구를 해소하며 이웃사랑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사랑의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사랑의복지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후원, 지역복지·가족·교육·직업지원 등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2006년부터 옥한흠장학회를 통해 미자립교회·선교사 목회자 자녀, 저소득층 가구 자녀 등 560명에게 26억4400만원을 전달했다. 2009년부터 매년 개척교회 세미나를 진행해 1500명의 목회자를 후원했으며, 2010년 1만6083명이 장기기증에 참여해 단일 기관으로 최다인원을 기록하였다(국민일보, 2012).

III. 결 론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과제는 지역의 기독교사회복지 태도의 명확화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교인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실천에 대한 지식, 이해와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며, 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기독교 사명의 하나라는 것에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기독교사회복지 내용의 명확화이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기독교가 시행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참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또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 의향과 지역사회실천과 신학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임의 참석, 또 기독교의 목표와 목적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이다(전광현, 2007).

이러한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적인 내용은 성서 속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 명확한 활동과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그 형태와 의의에 있어 일반적인 사회봉사와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이 복음전도와 함께 해야 한다. 선성장후복지가 아니라 통전적인 복음의 실천에 두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역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상식선에서 사회복지실천하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선택은 당회에서 하지만 실제의 운영은 사회복지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넷째, 교회는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복지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 일이다.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필요한 부분도 채워줘야 하지만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 당면한 물품제공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매결연 등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강희동, 2011). 기독교 사회복지의 대상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공동체라 생각하고 과학적 조사와 방법으로 지역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한 후 교회가 가진 인적,물적 조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회에서 적용가능하고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교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정순봉, 2008).

기독교의 교회 공동체가 상호 지지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구제와 봉사는 하나의 어려운 사업이 된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기에는 벅찬, 아주 부담스러운 고역이 되어진다. 이러한 '사업으로서의 사회복지'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주는 자와 받는 자로 영원히 분열시키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만족할수 없으며, 결국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활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도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봉사를 기관이나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위탁해버리는 '봉사 떠넘기기' 병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는 어떠한 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봉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을 추진해야만 한다(나상운, 2003).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구조와 내용, 이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도 아직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기독교사회복지 접근 전략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확보가 우선되고 이에 따라 교인들의 대한 교육 및 기독교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기독교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동. 2011. 교회사회복지 실천사례를 통한 기독교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논문.
- 강준열. 2003. 국가발전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 나상운. 2003.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실태와 개선 방안. 안양대학교 석사논문.
- 남희수. 2005.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평택대학교.
- 박성우.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성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 손주완. 2002. 기독교 인간존중 사상과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상대학교.
- 신현석. 2008. 기독교사회복지 패러다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지역사회. 59: 76-87.
- 오은석. 2003. 기독교 사회복지 배경 및 실천의 향상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 현. 2004.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적 방향. 안양대학교 석사논문.
- 이성근. 2013.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 이준우. 2012.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의 현황과 방향성. 19: 73-121.
- 이형진. 2008.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 전광현. 2007. 한국 기독교복지의 활동과 과제. 한국종교간대화학회. 4: 61-94.
- 정순봉. 2008.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활성화 방안 : 교회자원의 활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